



국제 비교를 통한 보험산업의 중장기 성장성 평가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 본고는 국가마다 차이나는 경제 성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국제 비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보험료가 경제성장률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험 침투도를 통해 논의함
 - 보험 침투도는 ‘보험료/경상GDP’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제 성장 대비 보험료 성장을 파악할 수 있음
 - 보험료 성장률이 경제 성장보다 클수록(보험 침투도가 상승할수록) 성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며, 보험료 성장률이 높아도 경제 성장을 밀돈다면(보험 침투도가 하락)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
 - 보험 침투도 추이를 2004~12년, 2012~18년 두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에 대해서 국가별 보험 침투도의 연평균 상승률을 비교하였음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04~12년에는 상승세를, 2012~18년에는 하락세를 보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전기에 상승그룹에 속했으나, 후기에는 하락그룹에 속하였음
 - 2004~12년 중 우리나라 생명보험 침투도의 연평균 상승률은 전체 29개국 중 8번째였으나, 2012~18년 보험 침투도 상승률은 37개국 중 28위로 하락하였음
- 손해보험 침투도는 생명보험과는 대조적으로 2004~12년에는 하락세를, 2012~18년에는 상승세를 보인 국가가 더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전기에는 상승그룹에 후기에는 보험그룹에 속하였음
 - 2004~12년 중 우리나라 손해보험 침투도의 상승률은 전체 29개국 중 첫 번째였으나, 2012~18년에 보험 침투도 상승률은 35개국 중 21위로 하락하였음
- 외형적으로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의 성장성이 양호해보이나, 각각의 성장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18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손해보험의 성장성이 생명보험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침투도의 상승률 순위가 모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 회복이 단기 처방을 통해 달성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1. 보험 산업 성장의 국제 비교



■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면서 2017년(퇴직연금 제외 시는 2016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현저히 저하되면서 5% 전후 수준을 나타나고 있으나, 생명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국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차이는 경제 성장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본고는 보험료가 경제 성장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본고는 보험산업 성장성을 '경제 성장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산업이 성장하는 정도'로 평가하고자 하며,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서 보험산업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음
- 경제 성장 대비 보험산업의 성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상GDP 대비 보험료를 뜻하는 보험 침투도의 추이를 활용하고자 함
 - 보험료 성장률이 경제 성장보다 클수록(보험 침투도가 상승) 성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며, 보험료 성장률이 높아도 경제 성장을 밀도다면(보험 침투도가 하락)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
- 보험 침투도는 특정 시점의 국가 간 상호 비교를 통해 보험시장의 성장성을 평가¹⁾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보험 침투도의 수준이 국가별 구조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²⁾에 유의해야 함

■ 본고는 우리나라 보험 침투도의 중장기 추이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였음

-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OECD 생명, 손해보험 보험 침투도 자료를 활용하였음³⁾
 - OECD 보험통계는 OECD 회원국 이외의 상당수 국가에 대해서도 통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세계 주

1) 본고는 침투도가 낮은 것만으로는 성장성이 높다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침투도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야 성장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함

2) 2018년 기준 생명보험 침투도의 경우 한국이 5.9%인데 비해 영국 9.6%, 미국 4.4, 독일 2.7%, 네덜란드 1.5%, 캐나다 1.3% 등 매우 다양함. 손해보험의 경우도 한국이 4.7%인데 반해 미국 6.8%, 독일 3.7%, 영국 3.6%, 스웨덴 1.9%, 이탈리아 1.9% 등 보험산업이 참여하는 해당 국가의 복지 등 사회적 역할에 따라 구조적인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남

3) OECD 보험 통계의 손해보험 보험료는 생명보험과 같이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내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원수보험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장기 추이를 관찰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음

요 국가 간의 비교에 용이함

- 주요 국가들을 보험 침투도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보험료 성장이 경상GDP을 상회하는 경우), 보험세를 보인 경우, 하락하는 경우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국가별 분포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였음
 - 본고는 특정 비교 기간 중 보험 침투도의 상승률이 연평균 $\pm 1.0\%$ 이내인 경우는 보험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초과할 경우 상승그룹, 미달할 경우 하락그룹으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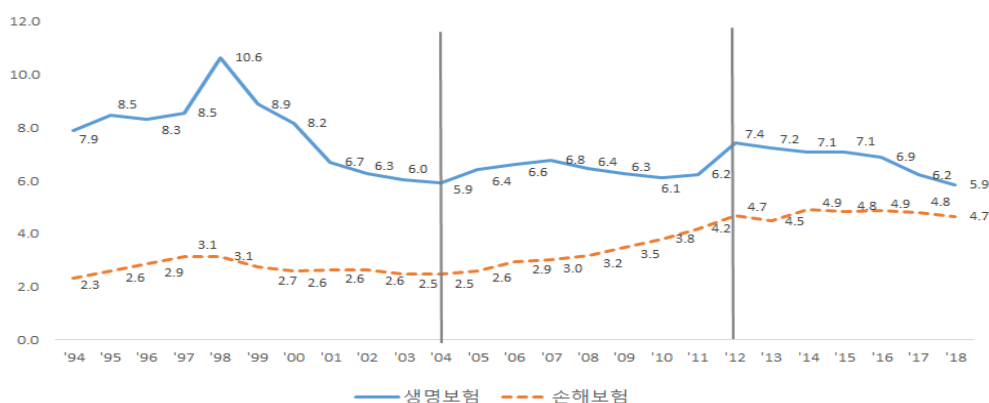
2. 우리나라 보험 침투도 추이의 특징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상GDP 대비 보험료 성장을 보험 침투도 추이의 변화를 통해 파악해본 결과, 생명·손해 보험 모두 2004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추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이전 기간은 외환위기와 더불어 많은 구조적 변화들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었던 만큼 2004년 이후를 국제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음⁴⁾
- 생명보험은 2004년 이후 퇴직연금 도입, 변액 보험 등으로 2012년까지 보험 침투도가 다소 상승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꾸준히 침투도가 하락하고 있음
- 손해보험은 2004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특별한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경상GDP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우리나라 보험 침투도 추이



자료: OECD

4) 과거 시점을 포함할수록 아시아, 남미,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 가능 국가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도 비교시점을 2004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임

■ 따라서 2004~12년과 2012~18년을 비교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보험 침투도 상승률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논의하고자 함

- 해당 기간 중 비교 가능한 국가들을 보험 침투도 변화율에 따라 3개 그룹(상승, 보합, 하락)으로 나누었으며,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 논의하였음

3. 보험 침투도 변화의 국제 비교



■ 생명보험의 침투도는 2004~12년에는 상승세를, 2012~18년에는 하락세를 보이는 국가들이 더 많이 분포했으며, 우리나라는 전기에 상승그룹에, 후기에는 하락그룹에 속하였음(〈표 1〉 참조)

- 2004~12년 생명보험 침투도 변화를 보면 비교 가능한 29개국 중 상승그룹에 14개국, 보합그룹에 5개국, 하락그룹에 10개국이 분포되어 전반적으로 경상GDP 대비 보험료 성장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기간 중 우리나라 생명보험 침투도는 연평균 2.9%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전체 29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성장성이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1〉 생명보험 침투도 상승률에 따른 국가별 분포

구분	상승	보합	하락
2004~12년	한국, 일본, 멕시코, 미국,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터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비교국가(29개국)	14	5	10
2012~18년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비교국가(37개국)	12	8	17

자료: OECD

- 2012~18년 생명보험 보험 침투도는 비교 가능한 37개국 중 상승그룹에 12개국, 보험그룹에 8개국, 하락그룹에 17개국이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한 국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하락그룹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침투도 상승률이 37개국 중 28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성장세가 다른 국가들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침투도는 생명보험과는 대조적으로 2004~12년에는 하락세를 2012~18년에는 상승세를 보이는 국가들의 분포가 더 많았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에는 상승그룹에, 후기에는 보험그룹에 속하였음(〈표 2〉 참조)
 - 2004~12년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를 보면 비교 가능한 29개국 중 상승그룹에 5개국, 보험그룹에 10개국, 하락그룹에 14개국이 분포되어 생명보험과는 대조적인 분포를 보임
 - 동기간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침투도는 연평균 8.2% 상승하여,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표 2〉 손해보험 침투도 상승률에 따른 국가별 분포

구분	상승	보험	하락
2004~12년	한국, 터키, 멕시코, 덴마크, 그리스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비교국가(29개국)	5	10	14
2012~18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에스토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터키,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비교국가(35개국)	11	18	6

자료: OECD

- 2012~18년 손해보험 보험 침투도 변화를 보면 비교 가능한 35개국 중 상승그룹에 11개국, 보험그룹에 18개국, 하락그룹에 6개국이 분포되어 전반적으로 손해보험 보험료는 경상GDP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음
 - 상승그룹의 11개국 중 종목별 침투도 파악이 가능한 5개국(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의

- 경우 모두 상해·건강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기간 우리나라 손해보험 침투도는 보험세를 보였으나, 침투도 성장률은 35개국 중 21번째로 나타나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성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4.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 평가 및 시사점



■ 외형적으로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의 성장성이 양호해보이나, 각각의 성장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18년 국가별 보험 침투도 변화를 볼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의 성장성이 생명보험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2012~18년 동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침투도가 하락한 국가들의 수가 더 많은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상승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2〉 참조)
 - 2012~18년 동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 침투도 변화를 국가별로 직접 비교하여도 손해보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국가가 35개국 중 과반수인 22개국으로 나타남(〈표 3〉 참조)

〈표 3〉 생명·손해보험 침투도 상승률 상대 비교(2012~2018년)

구분	손해 > 생명	생명 > 손해
국가명	한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터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국가 수(35 개국)	22	13

자료: OECD

- 반면, 우리나라 생명보험,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성을 각각 다른 국가들과 상대 비교했을 때 모두 중간 이하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표 1〉, 〈표 2〉 참조)
 - 2004~12년 우리나라 보험 침투도 상승률의 순위는 생명보험 8위(29개국), 손해보험 1위(29개국)로 나타나 명확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음
 - 반면, 2012~18년 기간 동순위는 생명보험 28위(37개국), 손해보험 21위(35개국)로 하락하여 하위

권으로 악화되었음

- 이는 경제성장 대비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성장성은 생명보험·손해보험 모두에서 다른 국가들 대비 악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 회복이 단기 처방을 통해 달성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보험산업의 성장에 비우호적인 요인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엔진을 단기간에 보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의 저성장에는 저금리 기조 심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타금융권과의 경쟁 격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노후 소득, 질병, 예측치 못한 경영 환경 불안정 등과 관련한 위험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 기회도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고령화의 심화, 디지털 환경의 발전, 새로운 환경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kiri**